

이 “5강 경제대국” vs 윤 “책임있는 변화”

설 연휴 앞두고 ‘판세 우위’ 선점...비전 대결 이재명, TED식 강연...윤석열, 국정운영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비전 대결이 대선을 두달 정도 앞둔 11일 본격화되고 있다.

“민심의 대이동”으로 판세가 출렁일 수 있는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두고 두 후보가 국가 경영 비전과 경제 성장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 및 2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가 그간 경제 정책의 거대 담론으로 내걸었던 ‘전환적 공정 성장’을 성장의 관점에서, 실행 방향을 담아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 마련,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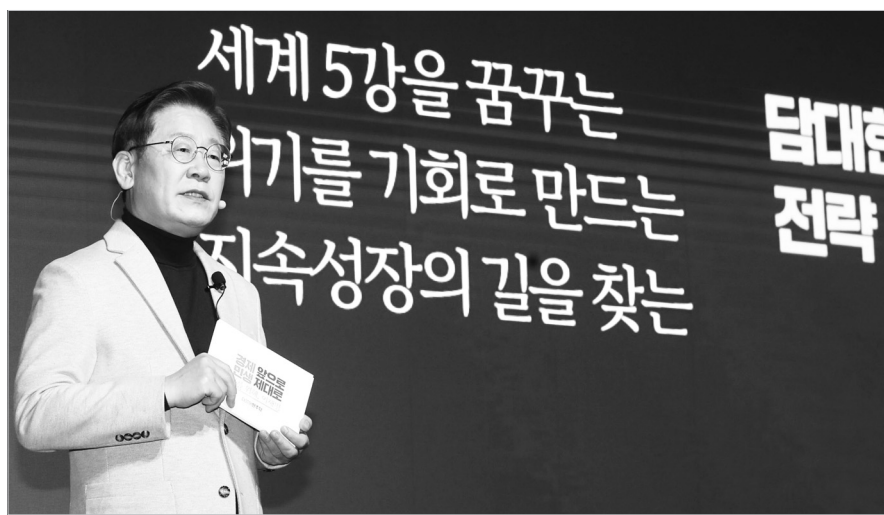
(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 전략기술 지정, ‘5극 3특’ 체제 조광역 메가시티 재편 등이 포함됐다.

또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및 기후에너지부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 부문 개혁과 주가 조작 ‘월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금융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 성장을 끌어내겠다”며 과감한 기업 규제 개혁도 약속했다.

그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잡스를 연상시키는 옷차림에 글로벌 강연 플랫폼 테드(TED)의 연설자처럼 대형 공간에 설치된 프레젠테이션(PT) 무대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책임 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 확보 방안 등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여겠다”

며 직접 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 임자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와 아이를 낳으면 1년간 매달 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짓는 역세권 첫 집 20만호 등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 원자력발전소를 적정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탈탄소 기술 개발 등

을 통해 기후 에너지 분야 선도국가로 올라서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견은 청년들이 오랜 공장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민주, 대선 기여도 지방선거 공천 ‘촉각’

출마자들 평가 기준 등 ‘갑론을박’ 예의 주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혀 지역정치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역 선출직 공직자 등 출마예정자들은 중앙당의 지방선거 대선거 기여도 평가 기준과 반영 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전략기획위원장 강훈식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당사에 “지방선거 공천 룰인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선 승리를 위해 지방 하부조직

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 등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원과 복당자 등이 출마 예정지역에서 득표를 제고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수치화해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이다.

출마예정자들이 평가 기준 등에 ‘갑론을박’ 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A단체장은 “현역 단체장은 선거 중립성 문제 때문에 드러내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정량적 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다”면서 “구체적 기준에 도전하는 다른 출마예정자에 대해

서는 선대위 역할을 부여해 실적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입후보 예정자들은 대선 선대위 명함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정장을 도전하는 B광주시의원은 “대선전이 온라인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만큼 SNS 활동 등이 평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마예정자들이 지역위원장이나 시·도당위원장 앞으로 치열한 줄서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단체장은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이 있어 지방의원을 처럼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선 공약 발굴에 대선 기여도 평가에 반영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이 앞다퉈 대선 공약을 만들어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채택 여부에 따라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광주시장 선거에서 경쟁하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선 공약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조정식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김성환 공동위원장 등에게 광주군공항 이전 등 8대 분야 20개 중점 공약과제를 설명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 전 수석도 호남총괄특보담당장 명의로 ‘이재명표’ 제2의 영호남상생공약과 호남 트라이포트 공약 등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오선우 기자

정기 브리핑

서삼석 “축산사료 해외 의존 심각”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돼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 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으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 농업생산액의 25%인 8조 1,000억원에서 2019

년 40%인 19조 8,000억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증가했다.

서 의원은 “해외 의존 심화로 불거졌던 최근의 요소비료 및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사료 시장에서 반복된다면 연쇄파급효과로 축산업마저 붕괴할 수 있다”며 “쌀 문제에 이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해법 마련을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국민의힘 내부서 단일화 찬반론 고조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접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자력 승리에 대한 확신의 차이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의 11일 ‘우클릭’을 지속해 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이상 중도

를 대표하지 못한다며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단일화 논의에 군불을 때는 일부 인사들을 ‘거간꾼’으로 부르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 대표의 자신감은 윤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근거로 한다. 자체 조사에서 급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1월 6일 시행(내부) 조사보다 1월

8일 시행 조사에서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대선 승리의 필요조건으로 보는 이들도 당내에 적지 않다.

대선 코앞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탄탄하게 10%대를 유지할 경우 단일화 없이는 낙승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을 근거로 한다.

선대본부의 공식 활동과 무관하게 안 후보 측 관계자와 물밑 접촉하는 국민의

힘 인사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과정에서 공동 정부론도 설익은 형태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 지지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일화 논의는 필연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단일화라는 게 국민의 명령 아닌가”라며 “민심의 압박을 두 후보 모두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신정훈, 코로나19 사각지대 간담회

가항력적 재난피해자의 복구 및 재기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1일 오전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제안자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민형배, 이동주, 진성준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재난피해자의 피해 복구 및 생업 재기 등을 위한 피해자

원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발제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미 그 골자가 담겨 있다. ‘피해 복구, 생계 안정, 경영 안정’ 실현이라는 피해지원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오리지날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모델 강석우 내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국민 권용량 함유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엔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기, 셀레늄(S)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주 분량 | 전국 어디서든 1577-0426 4월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의 고객센터 080-800-8888 | www.v9genil.co.kr

● 서울: 경남 (02)255-8888 ● 부산: 부산 (051)255-8888 ● 대구: 대구 (053)255-8888 ● 광주: 광주 (061)255-8888 ● 대전: 대전 (042)255-8888 ● 인천: 인천 (032)255-8888 ● 강원: 강원 (033)255-8888 ● 충청: 충청 (041)255-8888 ● 전북: 전북 (063)255-8888 ● 전남: 전남 (061)255-8888 ● 경북: 경북 (054)255-8888 ● 경남: 경남 (055)255-8888 ● 제주: 제주 (064)255-8888 ● 해외: 해외 (02)255-8888